李朝後期 農學과 徐氏 3代의 家學

金 榮 鎭
招請硏究員, Ph.D. (作物學)

Ⅰ. 農事直說에서 增補山林經濟까지
Ⅱ. 徐氏 3代의 家系와 農學
Ⅲ. 結 語

Ⅰ. 農事直說에서 增補山林經濟까지

우리 나라에 現存하는 옛 農書는 그 數가 많지 않다. 農書의 範圍를 農林畜水産 등 一次産業分野 전체로 網羅하더라도 專門的인 農書는 百을 넘지 않을 것이다. 筆者는 本試稿에서 얼마 안되는 農書 중 耕種關係를 중심으로 한 우리 옛 農書의 主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大丘 徐氏 3代가 李朝後期 農學의 發展에 寄與한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韓國農學史의 人脈을 整理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麗朝 이전에 國內人에 의해서 著述된 農書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香村先生實記나 攷事撮要 册板目錄, 그리고 大東韻府群玉(16卷)에는 李穡의 序文이 붙은 李嵒의 農桑輯要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李光麟에 의하면 李嵒의 著述이 아니고 李嵒이 麗朝의 侍中으로 있을 때 忠穆王을 모시고 元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1273년 元司農司撰으로된 農桑輯要를 持參하여 생질 禹確에게 주었으며, 知陝州事 姜蓍가 이를 復刊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麗朝에서는 農書를 刊行한 사실은 있으나, 麗朝人에 의해서 저술된 農書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李朝에 들어와서 開國初에 新編集成馬醫方(附牛醫方, 趙浚 1399)이나 養蠶經驗撮要(韓尙德 1415) 등이 있으나 耕種農書로서는 官撰인 農事直說(鄭招 1429)이 最古本이 될 것이다. 農事直說은 周知하는 바 당시의 慣行된 農法을 集大成한 것으로 우리 民族農學을 대표하는 現存 農書이며 著者의 經驗을 토대로 이루어진 衿陽雜錄(姜希孟 1491)과 四時纂要抄가 그 脈을 이은 農書가 될 것이다. 四時纂要抄는 唐나라 韓鄂이 저술한 5卷의 四時纂要에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적절히 抄錄한 것이나, 이들 三農書의 뒤를 이은 것은 公州 牧師 申泳이 編纂한 農家集成(1655)이 될 것이다. 農家集成은 農事直說, 衿陽雜錄, 四時纂要抄의 三農書에다 1555년에 간행된 救荒撮要에 申泳 자신이 쓴 救荒補遺方을 附錄으로 보태서 集大成한 農書다. 이때의 農業事情으로서는 農家集成이 우리 農法의 大經大法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 農書이었다.

특히 農家集成이 우리 農法의 大經大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 風土를 기초로 著述된 農書들을 集大成한 점이며, 이 점에서 커다란 흠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餘他 農書들의 그 數가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年代가 경침에 따라 農家集成도 農事의 指針書로 사용되기에는 그 스스로의 限界와 缺陷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人智의 발달과 人口의 증가에 따라 技術面에서나 農產物의 需要(種類와 量)面에서나 새로운 農書의 출현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더우기 이것을 촉진시킨 것은 實事求是의 實學이 싹트면서였다.

이 무렵에 저술된 것이 磻溪隨錄(柳馨遠 1670), 穡經(朴世堂 1676), 穡經增集(朴世堂) 등이다. 磻溪隨錄은 순수한 農政書이고 技術書인 穡經과 그 增集은 우리 農業의 실제와 다소 거리가 있는 著書들이었다.

이 시기에 農家集成의 農學體系를 그대로 따르고 國內 각 지방의 俗方을 정리하면서 閑情錄(許筠 1610~1617)과 中國의 農書인 神隱書 등을 인용 저술한 山林經濟가 있다.

山林經濟는 17世紀 末에서 18世紀 初葉에 걸친 洪萬選이 저술한 綜合農業技術書이다. 洪萬選(1643~1715)은 京官과 地方官으로 30년 동안 在職하면서 地方官으로 각지를 전전할 때에는 地方의 農業事情을 觀察體驗하고 京官으로 內職에 있을 때에는 京中의 各種 圖書를 열람하면서 耕種, 園藝(과수, 채소, 화훼) 蠶業, 畜產, 病虫害 등을 포함한 방대한 農書를 集大成한 것이다.

山林經濟는 취급한 범위가 다양하고 內容을 정리함에 있어서 作物別로 栽培와 이용을 體系있게 分類 整理하였다는 면에서 農家集成의 學脈을 이으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洪萬選은 農書를 참고하고 인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農書와 慣行을 중심으로 엮었으며 우리 農書와 俗方으로 설명할 수 없는 問題만을 中國農書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農學과 技術이 發展될 뿐만 아니라 旣存 農書인 山林經濟에도 그 疎漏한 점을 보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것은 學問과 技術의 발전에 따라 항상 반복되는 現象이지만, 이 무렵에 나온 農書들이 農圃問答(鄭尙驥 1752), 增補山林經濟(柳重臨 1766), 攷事新書(徐命膺 1771), 北學議(朴齊家 1782)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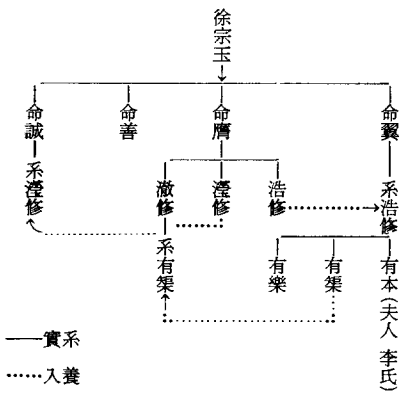
그후 1798년 正祖의 勸農政求農書綸音이 반포되고 應旨進農書 격인 課農小抄(朴趾源 1799) 및 農書總論(趙英國 1799) 등이 계속 간행되었다.

그중에 이 時期를 대표할 만한 農書로 增補山林經濟와 攷事新書가 있다. 增補山林經濟는 山林經濟의 거의 모든 項目에 걸쳐 讀者로 하여금 一目瞭然하게 添削정리하였으며 內容의 分量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添削의 태도에 있어서 山林經濟가 미처 인용하지 않았던 農家集成의 내용을 取擇하고 甘藷種植法(姜必履)의 內容 등을 追加하는 등 우리 農法을 중심으로 山林經濟를 증보하고 있다. 그밖에 우리 農書로서 부족한 부분만은 中國農書를 참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山林經濟를 증보한 지 5년만에 增補山林經濟의 내용과는 연관이 없이 山林經濟의 번잡한 곳을 줄이고 긴요한 것을 보완하여 간략하고도 요령있는 農書로 정리한 것이 攷事新書 農圃門이다. 여기에서 大丘 徐氏 一門의 家學으로서의 農學이 비롯되었는바, 그것이 李朝後期 農學發展에 어떻게 기여하였나를 살펴보기로 하자.

Ⅱ. 徐氏 3代의 家系와 農學

徐氏 3代란 徐命膺 兄弟와 命膺의 實子이며, 養侄이 되는 浩修, 그리고 實孫이며 養孫이되는 有榘 兄弟들을 指稱하는 것이다. 이들은 麗朝의 朝奉大夫 軍器小尹을 치른 徐閈을 始祖로 하는 大丘 徐氏 都尉公 후예로 이들을 系譜化하면 다음과 같다.



既述한 바와 같이 徐命膺은 攷事新書(1771)를 쓰고 그 아우 命善은 植木實總(1782)을 정리하였다. 浩修는 海東農書(1736～1799)를 쓰고, 그 아들 有榘는 林園經濟志와 種藷譜(1834)를 썼으며, 有本의 夫人 憑虛閣 李氏는 家政學인 閨閤叢書(1809)를 編纂하였다. 이렇듯 3代에 걸쳐 한 家門에서 現存 農書로서 6種의 大作을 완성하고 있다. 이제 各 農書別로 그 내용과 農學史的 意義를 槪述하여 보기로 한다.

1. 徐命膺과 攷事新書

徐命膺(1716～1787)은 文臣이며 大學者로 字는 君受, 號는 保晩齋 諡號는 文靖公이다. 吏曹判書 宗玉의 2男으로 1754년 文科에 及第하여 副提學 吏曹判書 등을 歷任하고, 王命으로 大樂前譜 大樂後譜를 완성하였다.

攷事新書는 1771년(英祖 47년) 徐命膺이 藝文館 提學으로 있을 때 官撰事業으로 완성한 것인데, 이는 官吏들을 위한 業務指針書였다. 이중에 農圃門과 牧養門이 들어 있는바 攷事新書 이전에 攷事撮要(1514)가 있다. 이는 魚叔權이 지은 것을 1585년에 許筠이 增補하고 1613년에 朴希賢이 다시 증보한 것으로 農水產關係로는 牧馬와 救荒 關係가 들어 있을 뿐이다. 이는 事大交隣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各種 事項을 수록한 것인데 事大에 관한 사항을 지나치게 취급하고 우리나라에 관한 사항을 輕視하고 있을 뿐 아니라 攷事撮要의 編纂當時와는 狀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 이를 添削補完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 책이 바로 攷事新書인 것이다.

攷事新書는 山林經濟의 農圃內容을 요령 있게 添削하여 攷事新書 農圃門으로 編入하고 있는데, 添削의 趣旨는 山林經濟가 지니고 있는 農學의 趣旨와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攷事新書의 編纂態度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것을 중심으로 主體性이 있게 편찬되어 山林經濟의 編纂態度와 다를 바가 없다.

政府에서는 攷事新書農圃門을 간행하고 널리 보급시킨 바 있으니, 山林經濟가 攷事新書의 한 部門으로 添削編入된 것은 韓國農學史上 큰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徐命善과 植木實總

徐命善(1728～1791)은 文臣으로 字는 繼仲, 號는 歸泉 또는 桐源이다. 1763년 增廣文科에 及第하여 弘文館校理를 비롯하여 豊山萬戶 등을 거쳤으며, 1766년 文科重試에 丙科로 及第, 承旨, 江原觀察使, 大司憲, 吏判 등을 거쳐 1780년 領議政에 이르렀다.

植木實總은 그가 領議政으로 있을 때 王旨(正祖 6년)를 받들어 宮內外의 植木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여 편찬한 책으로 일명 植木節目이라고도 한다.

종래 우리 나라에는 林業專門書가 없고 種樹關係를 다룬 것들이 있더라도 經濟樹種인 버들, 뽕나무, 닥나무, 잣나무 등과 果樹 위주의 記錄들이었다. 本書는 林業技術이나 造林 또는 이용에 관해서 積極的인 것은 못되나 制度面에서 山林保護에 힘을 쓰게 된 효시가 되었다. 내용은 宮闕 주변의 風致林과 花木 그리고 果木의 栽植 保護가 주된 내용이지만, 春秋二期에 植木을 한다든지 接木을 통한 技術改良 등은 造林과 繁殖의 좋은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宮內 주변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都廳 또는 山直 등의 擔當機關과 看檢을 통한 保護制度는 後日의 우리 나라 林業制度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후 6년만인 1788년의 松禁事目이 제정된 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3. 徐浩修와 海東農書

徐浩修(1736~1799)도 文臣으로 字는 養直이다. 1765년 式年文科에 壯元하여 持平이 되었으나, 舌禍로 왕의 비위를 거슬려 南海에 流配되었다가 그후 校理, 奎章閣 直提學, 觀象監 提調 등을 역임하였다.

海東農書는 이 徐浩修의 著述이다. 海東農書의 序文格인 凡例를 보면 그의 著述意圖를 읽을 수가 있다. 첫째로 그는 이 凡例에서 農事는 自然條件인 地力, 氣温, 水利, 地帶 등의 差異에 따라 農法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으니 中國의 農書를 參考는 하되 우리 나라 與件에 맞는 農書를 만들고자 책의 이름부터 海東(韓國)農書라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로 本書를 저술함에 있어서 農事直說, 衿陽雜錄, 農家集成, 磻溪隨錄, 增補山林經濟, 醫鑑本草 기타 名賢의 撰한 바나 農夫들의 記錄을 널리 수집 참고하여 이를 根幹으로 하는 한편, 中國의 옛 농법인 王禎의 農桑通訣, 徐光啓의 農政全書, 記勝之書, 齊民要術 등을 참고하여 시행하기 쉬우면서 慣行에 가깝고 土宜에 맞는 農法을 수록하였다고 하고 있다. 세째로 우리 나라는 南北으로 三千里에 뻗쳐 氣候條件의 差異는 매 千里마다 10日(1旬)간의 파종시기의 差異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天時에 맞는 適期 營農을 例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海東農書는 그가 世上을 뜨기 전까지 完成을 못본 未完成의 것이나, 그의 農學史的 系譜를 보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農家集成, 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 攷事新書의 農學體系를 그대로 繼承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 海東農書의 農學思想은 徐氏 3代의 家學으로서의 農學이 뒷날 林園經濟志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면에서 學脈의 건널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徐有榘와 種藷譜, 林園經濟志

徐有榘(1764~1845)는 李朝末期의 農政家로 字는 準平, 號는 楓石이다. 1970년 文科에 及第한 후 兵曹 및 吏曹判書, 左參贊 등을 거쳐 후일 大提學에 올랐다.

그가 著述한 農書로서 種藷譜가 있다. 徐有榘가 湖南巡察使가 되어 蘆嶺의 南北을 왕래하던 1834년에 地方民의 慘狀을 보고 日本에 가는 通信使 편에 고구마를 부탁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면서 이 種藷譜(1834)를 저술한 것이다. 이는 주로 救荒作物로서의 効用을 논하면서 姜氏甘藷譜 등 15種의 農書를 引用하고 있다. 그런데 그 引用하는 態度에 있어서 引用文獻과 意見이 다

르거나 우리 나라에 알맞지 않는 것은 案이라 하여 이를 批判하거나 알맞는 방법으로 消化하고 있다. 또 같은 사실에 兩說이 있을 때에는 직접 比較試驗(當並試之)하는 데까지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 風土에 알맞는 栽培法의 究明과 서술에 力點을 두고 있는 점이다.

다음으로 徐有榘의 저술로 林園經濟志가 있다. 本書는 그의 家學으로서의 農書일 뿐만 아니라 正祖末年에 있었던 農書編纂計劃에 맞춘 綜合農業技術書이기도 하다. 또한 本書는 그의 家親인 徐浩修의 海東農書가 완벽을 기할 수 없었던 점을 完成시켜야 할 義務마저 있어, 오랜 동안의 見聞과 硏究 끝에 完成된 것이 林園經濟志인 것이다. 그는 本書를 완성하기 전에 旣述한 種藷譜를 비롯하여 杏蒲志, 金華耕讀記, 蘭湖漁牧志 등의 農書를 著述한 바 있다. 이러한 見聞과 硏究過程을 거쳐 완성된 林園經濟志는 編纂에 있어서 종래 우리 農學의 體系 위에서 이를 더욱 擴大 發展시키고 당시의 農業實情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最新의 意見을 되도록 많이 종합하고 있다. 그가 참고한 資料는 그 父親의 海東農書나 祖父의 攷事新書農圃門, 山林經濟, 課農小抄, 北學議, 農家集成, 穡經 등을 중심으로 國內外 農書 800餘種에 이른다.

그러나 그 參考와 引用은 徹頭徹尾 우리의 農業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各地의 緯度와 經度를 측정하는 한편 同一高度의 地帶가 아니면 같은 作目이라도 그 受容에 支障이 있을 것을 考察했다. 이러한 觀點은 대체로 그의 父親의 農業論과 같은 것이다.

5. 憑虛閣 李氏와 閨閤叢書

憑虛閣 李氏는 徐有榘의 兄嫂이며 徐有本의 夫人이 된다. 平壤監使 李昌壽의 딸로서 有本에게 出嫁한 후에는 일시 시동생인 有榘를 가르친 바도 있다. 文章과 詩文에 뛰어나고, 그가 51歲 되던 해 閨秀文學의 大作이라고 볼 수 있는 農家政學書, 閨閤叢書(1809)를 완성하였다. 閨閤叢書란 안방, 즉 부녀자를 위한 叢書란 뜻으로 4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권에는 술과 음식(酒食議), 제 2 권에는 바느질과 길쌈(縫紝則), 제 3 권에는 農事關係와 花卉가 포함된 시골살림의 즐거움(山家樂), 제 4 권에는 병다스리기(靑囊訣) 등으로 되어 있다.

本書의 序文에 本書를 엮은 동기와 방법을 들고 있다. 즉 총명함이 무딘 글만 못하다는 옛말에 따라 여러 가지 書籍을 참고하여 가장 요긴한 말을 가려 적고 자기의 소견을 덧붙여 類聚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우리 習慣에 영합되고 우리 生理에 맞는 農家政學書를 꾸리는 데 主眼點을 두고 있다. 本書는 "술짓는 법," 群學會騰(博海通攷) 등의 食品書에 비하여 견줄 바 없이 그 內容이 방대하고 짜임새 있게 정리되었다는 면에서 우리 나라 農家政學의 鼻祖라 볼 수 있다.

Ⅲ. 結　語

이상 現存 古農書 중 耕種部門을 중심으로 李朝初期에서부터 19世紀 중반까지 韓國農學의 脈을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民族農學의 學的 體系를 세움에 있어서 그들이 外來農學의 受容態度를 어떻게 갖고 있었는가에 焦點을 두어 整理하였고, 끝으로 徐氏 3代 5人의 業績을 소개하였다.

얼마 되지 않는 옛 農書 중에는 당시의 農業事情에 적절하게 迎合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農書編纂에 있어서 中國農書의 영향을 받지 않

을 수 없는 것은 地理的·歷史的인 면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中國農法을 받아들이는 態度에 있어서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일부 農書가 현실에 맞지 않는 內容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은 과거 中國農書를 그대로 復刊한 惰性이거나 著者 자신들의 農事에 대한 經驗과 識見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事大根性에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農書일수록 난해한 경향이고 高邁한 卓論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소화되지 않은 農書의 編纂傾向은 19世紀 후반 이후 심하게는 1910년대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李祐珪의 農桑撮要(1884)가 그러하고 崔漢綺의 演心機(1842)나 農政書(?) 그리고 李淙遠의 農談이 그러하다. 심지어는 일부 農書에는 泰西農法을 導入 紹介하는데 機種圖解의 部分表示를 英字記號를 그대로 옮겨 넣고 있어 그 記號에 대한 說明이 없는 이 農書를 英字가 소개되지 않은 1860년대에 이해할 사람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耕種部門보다도 農機具, 農業土木, 蠶業分野의 農書에 심한 경향이다.

끝으로 徐氏 一門의 家學으로서의 農學이 위로는 農事直說, 衿陽雜錄, 農家集成, 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 아래로는 攷事新書, 海東農書, 林園經濟로 통하는 主體性있는 民族農學의 學的 體系를 갖추고, 이를 形成 發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功을 찬양하며 우리 나라 林學과 山林制度 그리고 農家政學 發展에 길이 남을 記念碑的 著述임에 敬意를 표하면서 뜸들지 않은 本試稿를 끝낸다.

參 考 文 獻

鄭招, 農事直說 1429.
權文海, 大東韻府群玉(16卷) 1798.
李光麟, 「歷史學報」, 第28輯, pp. 25—39.
李春寧, 「李朝農業技術史」, 1964.
元司農司, 農桑輯要 1273.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硏究」, pp. 230～397.
申泳, 農家集成 1655.
朴世堂, 穡經 및 穡經增集 1676～1703.
許筠, 閑情錄 1610～1617.
洪萬選, 山林經濟 1643～1715.
鄭尙驥, 農圃問答 1752.
柳重臨, 增補山村經濟 1766.
朴齊家, 北學議 1782.
徐命膺, 攷事新書 1771.
朴趾源, 課農小抄 1799.
趙英國, 農書總論 1799.
日新閣, 「韓國人의 族譜」, 1977.
新丘文化社, 「韓國人名大事典」, 1967.
鄭良婉 譯, 「閨閤叢書」, 1980.
魚叔權, 攷事撮要 1514.
徐命善, 植木實總 1780.
徐浩修, 海東農書 1799.
徐有榘, 種藷譜 1834.
徐有榘, 林園經濟志 1845(?).
崔漢綺 演心機 1842.
李淙遠, 農談 1894.
李祐珪, 農桑撮要 1884.